

## □ 컴퓨터 단상 □

## 21세기 지식정보사회 준비를 위해 토요일은 휴무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진원\*



다가오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국가 시스템 정비와 경제 사회적인 제도 정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면적인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여 지식정보사회의 밑그림을 그려서 일반 시민들의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을 바꾸어 보자고 제안한다.

해방이후 몇 차례의 변화를 거쳐 현재의 근무 시간 구조를 갖게된 것은 아마도 1960대 초반인 것으로 기억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주 6일 근무에 44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되어있다. 신정(최근 2일에서 1일로 바뀜), 구정(3일), 추석(3일)을 비롯하여 3.1절, 식목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탄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등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에다 연월차 휴가와 6일 정도의 하기 휴가 등이 보태진다.

그런데 이러한 근무 시간 구조가 지식정보시대에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공휴일을 기념일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날로 바꾸고 신정(1일), 설날(3일), 추석(3일) 등의 명절은 기념일로 존속시키되, 매주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제도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직장마다 다소 다르게 시행되고 있고 연봉제가 시행되던 논란의 여지가 큰 연월차 휴가는 폐지하되 6일의 하기 휴가는 존속시키도록 제안한다.

현재의 근무 시간 구조는 근본적으로 산업

시대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식정보시대를 준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중심 산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 산업, 방송 영상 산업, 관광 산업, 디자인 포장 산업 중에서 앞의 세 가지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기존의 근무 시간 구조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영화를 본다든지, 스포츠 구장에 간다든지, 관광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직장인들의 경우 주중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주말이나 시도해 볼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는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의 피로를 풀거나 교회, 성당, 절에 다니오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결국 1주일에 하루도 여유가 없다는 얘기인데, 토요일 하루를 이러한 활동이나 사회적인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날로 제공하지는 것이다.

현재의 공휴일 제도는 주중에 하루를 쉬거나 금요일, 혹은 화요일 같은 날 공휴일이 되면 그 주일에는 일하는 리듬이 깨져 일주일 내내 어정쩡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고 샌드위치 메이라고 하여 중간에 쉰 일하는 날 쉬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차라리 매주 토요일을 쉬는 것이 작업의 효율 면에서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토요일 4시간 근무를 위해(점심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3시간 정도의 근무 시간이 있을 뿐이다) 아침에 출근 전쟁을 벌이고 오후 내내 퇴근 시간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리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토요일을 여유 있게 보내게 되면 프로 야구 구장이나 프로 축구 구장에 학생이나 일상적인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신회원, E-mail : jwpark@computer.etri.re.kr

일반 직장인들도 관람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영화관이나 관광지에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미래 지식정보산업을 일으키려면 우선 수요자가 있어야 할텐데 토요일에 찾아드는 이러한 일반 직장인들은 지식정보산업의 훌륭한 소비자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벗어나 지식정보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토요일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날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4, 50대 이상의 기성 세대들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하는데, 매주 토요일 휴무일을 이용하여 컴퓨터 학습에 힘을 기울인다면 1년 이내에 젊은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그리고 현재의 공휴일을 기념일로 전환함으로써 주중에 쉬는 업무 리듬의 공백을 제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토요일에는 열심히 사회 봉사 활동이나 문화, 체육 행사에 참여하고 일요일에는 그야말로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월요일에 피로가 풀리지 않아 업무를 그르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과연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한다면 근무

시간이 어떻게 변할까? 이를 계산하기 위해 1998년을 예로 들겠다. 우리 나라 평균 근로자를 가정하여 법정 공휴일과 명절을 쉬고 1년에 최소 10일의 연차 휴가와 12일의 월차 휴가, 그리고 6일의 하기 휴가를 간다고 가정하면 1년에 모두 332시간을 쉬게 된다. 여기에는 물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쳐 쉬지 못한 경우도 감안되었다. 공휴일 제도를 앞에서 제시한대로 바꾸면 신정(1일), 설날(3일), 추석(일요일을 감안하면 2일), 하기 휴가(6일)와 토요일 휴무일을 모두 합쳐 308시간을 쉬게 되어 1998년의 경우 오히려 24시간을 더 일하게 된다. 이 경우, 광복절, 현충일 등 몇몇 주요 국경일은 휴무일로 정하더라도 근무 시간의 단축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연월차 휴가를 폐지하려면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는 밟아야 할 것이다.

이제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음 가짐으로, 많은 시간을 근무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식의 산업 사회적 사고 방식에서 탈피하여 충분한 휴식과 다양한 체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보탬이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 • 정 정 기 사 •

♣ 정보과학회지 제17권 제2호 60쪽 저자인 백인천 교수의 E-mail 주소가 잘못 게재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E-mail : skpaik@ait.or.kr → E-mail : paikic@asan.sch.ac.kr